

저돈가 및 불황시 범하기 쉬운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자



강 화 순 이사
에그리브랜즈퓨리나코리아
양돈마케팅

매년 가을이 되면 계절적 소비 비수기와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돈가는 하락하곤 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을철 돈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 안 좋은 변수가 있으면 미리부터 이에 대한 많은 얘기가 거론되면서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지곤 한다.

올해가 특히 그렇지 않은가 생각된다.

FTA타결로 인한 불안감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의 특징을 하나로 꼽는다면 아마 빨리빨리일 것이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관련 산업이 하루 아침에 망해버리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쉽게 잊어버리곤 한다.

세계의 유명한 경제전문가는 한국의 주가는 1년 후는 맞출 수 있어도 내일의 주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그 만큼 한국인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부화뇌동(附和雷同)이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양돈산업에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 양돈인들이 돈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돈가가 좋지 않다 보니 후보돈이 잘 분양되지 않고 인공 수정용 정액도 잘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내년 여름의 출하물량이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양돈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황과 호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양돈인은 돈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렇다 보니 돈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출하할 돼지가 없어 고통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저돈가일 때 범하기 쉬운 잘못에 대해 알아보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1.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돈가가 떨어지거나, 돈가가 좋아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혹 아래와 같이 하지는 않으신지요?

■ 불황이 오면

- 모돈수 줄이고
- 출하 걱정
- 단가 걱정
- 사료값 걱정

■ 호황이 오면

- 모돈수 늘이고
- 돈사 새로 짓고
- 땅도 사고
- 빛도 밝고

위와 같이 돈가에 의해 양돈 경영방식이 따라 움직이면 돈 벌 기회는 잘 오지 않는다.

양돈산업은 항상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해야만 돈 벌 기회가 찾아온다.

2. 저돈가시 범하기 쉬운 실수들

많은 양돈농가에서 돈가가 떨어지면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좋은 사료 쓰면 뭐하나? 인건비도 안 남는데...
- 개량을 하면 뭐하나 적자인데...
(키우기도 어려운데)
- 출하일령이 뭐 그렇게 중요하나?
- 소독, 백신? 줄일 수 있는 데까지 무조건 줄여야지...
- 관리는 무슨? 이제 지켜워 돼지는 보기도 싫은데...
- 양돈 얼마나 한다고 시설투자는 하나?

아울러 돈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서로 앞다퉈 비규격 돼지를 서둘러 출하하여 돼지 품질과 돈가를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3. 핵심 양돈 경영지침

잘 아는 바와 같이 양돈업은 생물을 다루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년 365일 항상 동일한 관리가 이루어져, 종부, 분만, 이유, 판매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저돈가라 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양돈 생산주기가 망가져 수익이 나지 않으며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아래의 양돈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양돈은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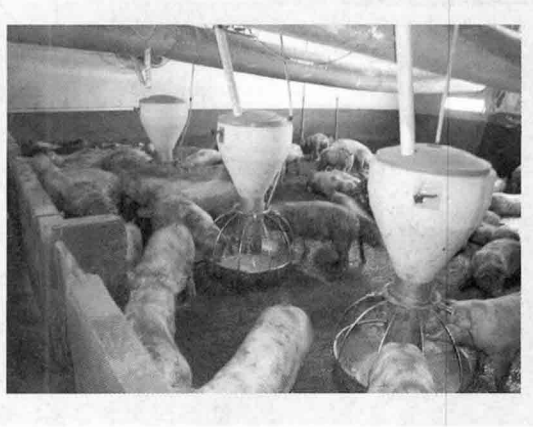
- 양돈 경영개념(수익성, 안정성)
- 고정비용이 높다.
- 생산성이 높아야 한다.

4. 저돈가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

일반적으로 저돈가(불황)는 결코 길지 않다! 짧게는 2달 길게는 4달 정도로 불황은 호황의 시작 시점이다.

양돈업에서 모돈생산성은 총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저돈가시 저가, 저품질 사료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료비 절감 없이 수익성만 저하시킬 뿐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저돈가시 다음 사항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1) 모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문제가 되는 번식 모돈에 대해서는 과감한 도태와 정기적인 후보돈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불황이라고 모돈을 줄이면 호황 시 판매할 돼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돈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

3)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료허실을 방지하도록 하고 사료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효율 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농장 총사료효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료효율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4) 기생충구제 및 방역관리 강화를 통해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저돈가일수록 돼지고기의 육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품종개량, 육질향상을 위한 사양관

리 및 사료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 저돈가일 때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필요한 시설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하며 기존 시설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저돈가일 때 수입이 적다 보니 투자여력이 없어 적절한 투자를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 호황시도 수입이 적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곤 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하는 방법은 저돈가라 하더라도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저돈가 및 불황일 때 범하기 쉬운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양돈 경영으로 돈 버는 양돈업이 되도록 하였으면 한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신뢰받는 안전돼지 사랑받는 우리돈육